쇠락해 가는 거리 끝, 오래된 지혜가 반짝인다

조대영의 헌책방 순례기

청주 중앙동 헌책방 거리

대성서점 박봉순 대표

반세기 지켜온 대성·중앙서점 두 어르신의 발자취
희귀본 탐색부터 전남광주 저자 책 수집 의미까지

청주는 인구가 86만인 도시다. 이 도시는 현재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 광역시급 행정·재정 권한을 주는 제도다. 청주시는 특례시 확대가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체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터미널 앞과 시내 곳곳에서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프랑카드를 만날 수 있었다.

청주에도 헌책방 거리가 있다. '중앙동'은 이름이 말해주듯 청주시의 중심지역이고, 여러 이유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이곳에 헌책방 거리가 형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70년, '대성서점' 박봉순 대표가 헌책방을 시작한 것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헌책방 거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책방이 14개가 운영될 정도로 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앙서점'과 '대성서점' 두 곳이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서점'과 '대성서점'은 두 서점 사이에 점포 3개를 두고 인접해 있다. 나는 이곳을 10년여 동안 다니고 있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 지금은 발길이 예전만 못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나는 전국의 '알라딘 중고서점'을 뻔질나게 다니며 마음에 드는 책들을 사들였다. 그때는 전국의 '알라딘 중고서점' 매장으로 쓸만한 책들이 쏠쏠하게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다. 이때 구입한 책들이 상당수 된다. 인구가 80만 명이 넘는 도시인 만큼 청주에도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다. '청주 읍성 안의 큰길'이라는 의미의 성안길 안에 '알라딘 중고서점 청주점'이 있다. 성안길은 쇼핑의 중심지이자 젊음의 거리로 광주로 따지면 충장로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면 헌책방 거리가 있다. 그렇게 '알라딘 중고서점 청주점'을 방문할 때면 '중앙서점'과 '대성서점'을 들렀다.

시간의 먼지 털어내고 되살려낸 숨결

두 서점 중 먼저 들어간 곳은 '대성서점'이었다. 아무래도 책이 더 많은 곳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성서점'의 박봉순 대표는 중앙동 헌책방 거리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가 이곳에서 헌책방을 시작했고, 마지막을 지키고 있다. 1938년생인 박봉순은 군 제대 후 서울 종로의 헌책방 거리에서 5년간 일하다 '대성서점'을 열었다. 옛 중앙극장 맞은편에서 개업했으며, 건너편의 현재 위치로 1982년에 이전해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서 50여 권의 책을 골랐다. 책을 솎아냈는지 1년 전에 비해 서점 안의 책들이 숨 쉬는 데 편해 보였다. 이런 이유로 책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뒤쪽의 책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구석구석 살피고, 사다리를 타고 위쪽에 있는 책들에도 손길을 내밀다 보니 예상외로 많은 책을 골랐다. 그 책 중에는 사전이 두 권 포함되었다.

나의 책 수집 아이템 중에는 '사전'도 포함되어 있는데, 두 권의 사전은 처음 접한 책이었다. 한 권은 '세계명언대사전'이었다. 큰 판형에 1258쪽에 달했다. '명언'으로 사전을 편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 책은 양주동 선생이 편찬했는데, 양주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이자, 자칭 '국보'로 통하는 국문학자이자 영문학자고, 시인이자 수필가다. 이 사전은 1973년 유문사에서 처음 나왔다가 이후 출판사를 옮겨가며 출간되었다.

내가 구한 책은 1989년 교육서관 출간본이다. 또 다른 한 권의 사전은 '한국문학명작사전'이다.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나온 소설 중에서 문제작 150편을 골라 그 작품의 줄거리와 문학사적 의의 등을 정리한 책이다. 이 사전의 '명작'선정은 그동안 한국문학사에서 제외됐던 납월북작가들의 작품과 해방 이후 북한 문학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

책값을 치르고 박봉순 대표와 서점 앞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박대표는 84세 때까지 충북장수축구단 조기축구회에 나가 아침 운동을 했을 정도로 스스로 건강을 지켰다고 했다. 그래도 노화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2024년 경추 척수증 수술을 했고, 수술 후 기력이 빠져서 일할 의욕을 잃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헌책을 청주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했다.

박물관 관계자를 불러서 가져갈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관계자는 필요한 책이 있었던 모양이다. 박 대표는 가지고 가려면 다 가져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1톤 트럭으로 다섯 대 분량의 책이 박물관으로 실려 갔다. 그중 일부는 세종어린이 박물관으로 갔다.

중앙서점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20여 권의 책을 골랐다. 그 책 중에 '사랑이여 안녕'이 있었다. 앞선 연재 글에서 나는 매일경제신문의 김유태 기자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아이템을 먼저 해 버렸다고 실망감을 토로했고, 나의 게으름을 자책한 적이 있다. 그 책이 바로 '밤과 책'이다. 이 책의 머리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의 정보를 얻게 되었다. 영화 '패왕별희'의 원작 소설인 릴리안 리가 쓴 '사랑이여 안녕'이 책이 귀한 관계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사랑이여 안녕'은 현재 15만 원이 넘는 값을 치러야 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헌책방을 다니면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순간은 이런 때를 말한다.

20여 권의 책 중에 한 권은 저자 때문에 산 책이다. 김대현 지음이라고 되어있었고, '테마가 있는 생활한자'라는 책이었다. 김대현이라는 이름이 궁금했기에 얼른 책날개를 펼쳤다. 예감은 적중했다. 현재 '전남광주 책박물관'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국문과 교수였던 김대현 교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대성서점'에서 고른 '감금의 정치'도 광주에서 알만한 사람이 쓴 책이었다.

'감금의 정치'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최정기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사회의 감금 실태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심각성을 밝힌 책이다. 책에는 지은이 소개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1959년에 태어나 주로 광주에서 성장했다. 삶에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은 1980년에 일어난 5·18 국가 폭력 및 민중항쟁이었다.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는데 신군부 반란에 동원된 군부대의 폭력이 무서워 시골로 피신했고, 이후 평생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을 안고 살고 있다." 항쟁 당시 광주를 탈출했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15만 원짜리 희귀 소설을 눈앞서 구하다

김대현과 최정기, 두 사람이 쓴 책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나는 최근에 나의 책 수집 아이템에 전남광주에서 나고 자란 혹은 생활하고 있는 저자들의 책을 집중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광주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내가 진단하는 광주의 특성 중 하나는, 광주 사람이 광주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한데도, 상대의 잘남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광주 시민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다.

소비도시인 광주는 작은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데, 파이가 적으니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깎아내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드러내고 서로를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전남광주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저자와 그들이 쓴 책이 있지만, 중앙이 아닌 지역의 작가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전남광주의 저자들이 쓴 책을 한데 모아서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책값을 치르고 '중앙서점'의 한영수 대표와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다. 1938년생인 한영수 대표는 1972년부터 이곳에서 헌책을 취급했다. 정확히 54년 동안 책을 만진 그도 기력이 많이 빠진 듯 했다. 그는 하루에 책 한 권을 팔지 못하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대성서점'의 박봉순 대표와 동갑인 한영수 대표는 만 나이로 88세다. 이들이 세상을 뜨고 나면 중앙동 헌책방 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한영수 대표와 대화를 하는 동안 반전이 있었다. '중앙서점'의 전면 유리창에 "1910-1970년대 고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다. 한영수 대표는 자신의 서점에 책을 사러 오는 사람이 붙여 놓은 것이라고 했다. 곧바로 통화했다. 조성실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서울의 청계천을 비롯해 헌책방을 다니며 20년 동안 모은 책을 처분한다고 했다. 보관 창고를 비워달라는 성화가 있다고 했다. 나는 전남광주에 책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니 분명히 필요한 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우리는 추석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

조대영 (영화인)